

기다려지는 문화이벤트 2題

백남준 비디오 아트 '팔만대장경'

10월 해인사 성보박물관

'독창적인 시도로 새로운 예술 세계에 도전한다.' 비디오 아트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백남준씨와 베니스비엔날레 수상작가...



백남준씨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작품은 오는 10월 해인사 성보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폐쇄카메라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TV를 통해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는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걸작 'TV 부처님'(1978년 작) 등 서양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정신세계를 접목시킨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백

씨는 이번 작품에서도 팔만대장경을 모티브로 세계의 보편정신에 다가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아트로 또한 번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백씨는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꼭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해인사 측에서 작품을 의뢰해와 작업에 임하고 있다"면서 "10월에 문을 여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2층에서 첫 선을 보이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밝혔다.

성보박물관내에 설치될 이번 팔만대장경 비디오아트는 40인치 모니터 12개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모니터는 팔만대장경의 제작과정과 문화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화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현재 백씨는 뉴욕에서 팔만대장경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작품 작업에 몰두해 있으며, 서울 호암갤러리와 로망갤러리에서는 10월 29일까지 2000년 새 세기를 맞아 삼성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이 공동기획한 '백남준의 세계 전이 열리고 있다'.

전수천씨의 이색 설치미술 작품은 내년 5월경 미국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전씨는 "내년 5월 1일~12일 차량 11대가 연결된 압트랙 대륙횡단 열차(미국 철도공사)를 백의민족의 상징인 흰천으로 색칠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6000킬로미터를 달리며 산, 강, 사막 등이 펼쳐져 있는 대자연에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차에는 관광객과 세계 석학들도 동승해 문화예술과 환경을 주제로 토론도 열 예정이다. 한국문화자료관도 마련된다.

특히 전씨는 내년 5월 9일 횡단의 중간기착지인 애리조나 사막에서 설치작품 '월인천강지곡(月印天江之曲)'을 선보일 계획이다. 애리조나 사막에 보름달이 뜰 때 사막 한가운데 은하수처럼 길게 365대의 모니터를 파묻고 화면에는 강물에 비친 1000개의 달의 모습을 영상화

전수천 이색 설치전 '월인천강지곡'

내년 5월 애리조나 사막



전수천씨

한다. 사막의 비디오 모니터에서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 배경으로 대금 연주자 30여명이 국악연주도 할 예정이다. 이 열차횡단의 전 과정은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된다.

원래 이 설치미술 프로젝트는 전씨가 93년부터 준비했으나, 그동안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하다가 올해야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나 총 30억원에 달하는 제작비 마련이 아직도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다. 전씨는 "이번 대륙횡단 프로젝트가 예술의 새로운 조형적 실험인 동시에 국경과 문화의 초월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독창적 시도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문화를 알릴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무더위에도 이랑곳없이 맹연습중인 LMB싱어즈는 16일 신입단원도 선발할 예정이다.

불자중앙단 'L.M.B 싱어즈' 여름나기

가을공연 준비 맹연습 구슬땀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엑센트를 살리면서 힘을 더 불어넣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7월 27일 저녁 8시 서울 효자동 청운빌딩 2층에서는 10여명의 젊은 불자 성악가들이 맹연습중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효자동 연습실에 모인 이들은 바로 불자중앙단 LMB싱어즈의 단원들. 에어콘도 없는 8평짜리 연습실에서 지휘봉을 든 단장 박성규씨도 단원들도 연신 구슬땀을 흘린다. 날씨는 30도를 오르내리지만 이 여름 꾸준한 연습을 통해 10월 말로 예정된 가을 정기

연주에서 멋진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LMB싱어즈는 정기연주회에 이어 하반기 사찰순회 연주와 군부대 위문공연,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연주회도 가질 예정이다. 보다 많은 불자와 군장병,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고 싶어서다.

LMB싱어즈는 가을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4년제 음악대학 졸업생으로 만 35세 이하의 신심 깊은 불자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오디션을 갖는다.

"정단원뿐 아니라 준단원과 명예단원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단장 박성규씨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후배,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통한 포교와 찬불가 보급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2-3677 이은자 기자

고국땅에 돌아온 日유출 문화재 57점

재일교포 김용두씨 수집 기증



◇인물과 배경묘사가 뛰어나 국보급문화재로 평가받은 '석가삼존도'(조선전기).

에도 문화재 114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박물관측은 "이번에 기증한 문화재들은 김씨의 뜻에 따라 고향 근처인 국립진주박물관에 두암실을 마련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nia.com)

'만남 그리고 상생' 허수아비 축제

국립민속박물관 3일~9월4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의 상봉과 민족통일을 염원하고 환경보전을 기원하는 '만남, 그리고 상생' 허수아비 축제가 3일~9월 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허수아비 축제는 참여자 모두가 하나되는 잔치마당으로 꾸며진다. 3일 오후 1시 가족과 이웃, 외국관광객과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꿈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가 열리고, 이어 직접 만든 허수아비앞에서 '허수아비와 함께 기념 사진 찍기'도 진행된다. 또 '새 시대 허수아비의 꿈 특별공연'에서 풍타타림, 전통춤, 사물놀이도 선보인다. 이날 행사에서 만들어진 허수아비와 함께 다양한 소재의 허수아비를 연출하는 이색 허수아비 전시 '지킴이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 허수아비 특별전'은 9월 4일까지 31일간 이어진다.

21세기 온 국민의 소망을 담아 겨레가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허수아비 축제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02)734-1341

문·화·단·신

심우방 도예전

도예가 심우방씨의 다섯번째 도예전이 8일까지 서울 관훈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도예의 질감과 회화의 색감 구도가 어울린 작품들이 돋보인다. 서예의 굵고 분방한 붓자국 같고 부유하는 원형동물들의 춤 같기도 한 추상적인 선들을 오래봐 보아는 집시의 질감과 함께 표현한 작품에선 음양오행 사상의 도가적인 분위기가 배어 나오기도 한다. (02)733-4448



◇주성준 작 '경허'

곽훈 '땅과 물' 전

서양화가 곽훈씨의 '땅과 물(Earth and Water)'전이 12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 제1.2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인의 한을 다루면서 땅을 흙으로 보고 작품의 소재로 삼은 '고분연작'과 다도와 선의 세계를 연계시킨 '차진시리즈' 등 영겁의 세월을 뜻하는 동양적인 우주관을 담은 작품이 전시된다. (02)720-5115

주성준 두번째 개인전

전통의 사상을 현대적 필치로 그려내는 젊은 화가 주성준씨가 제2회 개인전을 인천 진 갤러리에서 연다. 11일~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만행' '경허' '신오' 등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032)437-3383

일본으로 건너갔던 국보급 조선전기 불화가 다시 고국땅을 밟았다.

재일교포 사업가 두암 김용두(79)씨는 7월 25일 자신이 일본에서 구입한 조선전기 불화를 비롯해 도자기·목공예·금속공예 등 한국문화재 50건 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문화재 중에는 '석가삼존도'를 비롯해 '마리기전도', '하리제모도', '한성삼존도' 등 16세기에 그려진 조선전기 불화(탱화)가 4점이나 들어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전기 불화는 고려불화보다 남아있는 수가 적고, 그나마 국내에는 거의 전하지 않아 불교미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문수와 보현보살을 좌우에 배치한 '석가삼존도'는 섬세하게 표현된 인물과 배경묘사가 뛰어나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려중기 불교의식에 사용됐던 '청동은인사수월관음대반'도 청동대반 내부에 은으로 수월관음상을 새겨넣은 솜씨가 뛰어난 작품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상감청자나 분청사기, 19세기 대표적 포도화자인 최석환의 '목포도병' 등 지정문화재급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씨는 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국의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해 현재 1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김씨는 97년

헤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일 정: 서울-방콕-양곤-관간-만달레이-민군-해호-양곤-방콕-서울. 출발 일: 9/20일.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72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토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민군 종, 민군 대탑.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해호: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뱀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미얀마의 수도 양곤: 와불이 모셔진 차욱타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대신사리전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터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스포츠 조선과 함께 가는 실크로드 불교 문화탐방여행 8일 ₩1,349,000. 일 정: 서울-서안-양관-유원-투루판-우루무치-서안-서울.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출발 일: 8/4, 11, 18.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 길을 따라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자랍까지... 전문 안내인과 함께 다녀오십시오. 일 정: [21박 22일] 서안-난주-가유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포함사항: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원,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출발 일: 8/7 (10명이상 출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일 정: 서울-네팔,카트만두-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포함사항: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출발 일: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일 정: 카트만두-라사-장계-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포함사항: 항공료,숙박(조식포함),J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출발 일: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로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업체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민양지, 상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1년 항공권). 일 정: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드나-바이살리(대립정사,야쇼카 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해트 마헤트(사위정, 기원정사)-롬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포함사항: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출발 일: 15명이상 수시 출발